

# 수도권 간 비교를 통해 본 인천시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

장윤희\*\*·이정현\*\*\*·박민진\*\*\*\*·최지원\*\*\*\*\*·김범식\*\*\*\*\*

## I. 서론

## II. 여성기업의 정의, 주요 선행연구 및 지원정책

1. 여성기업의 정의
2. 국내 주요 선행연구
3. 수도권 여성기업의 지원정책

## III. 인천시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사업체 수로 본 인천시 여성기업의 위상
3. 인천시 여성기업의 주요 특성 분석

## IV.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에 발간된 「통계분석과 실태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여성기업 특성」 연구 보고서 일부를 인천시 기반의 최신 자료로 수정·보완한 연구이다.

\*\*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원

\*\*\*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연구원

\*\*\*\* 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분석센터 연구위원

\*\*\*\*\*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 연구원

\*\*\*\*\*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kbs@si.re.kr)

<http://doi.org/10.34165/urbanr.2024..26,217>

투고(접수)일 2024.4.29. 심사(수정)일 2024.5.23. 게재확정일 2024.12.18.

## I. 서론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여성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월 인천시장은 “인천기업의 41%가 여성기업이며 인천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위상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인천광역시 2024).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비단 인천시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여성기업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주목해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상황 속에서 양질의 여성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특히 미래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김범식·장윤희 2020). 예를 들어 고학력 여성층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산업부문에서 창업활동이 늘어나고, 여성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남성기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성기업에 주목하고 있다(김준·김지환 2018).

인천시 여성기업의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기업은 소기업과 특정 업종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어 고용의 질이 낮을 수 있고, 경영활동도 남성기업에 비해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기업의 정형화된 특징을 규명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제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인천시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 소재 여성기업의 정형화된 특징을 규명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여성기업

의 특성 분석을 위해 DB 구축과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통계청의 2012~2021년의 10년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수집하여 SAS를 활용해 약 4천 3백만 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2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첫째, 인천 소재 여성기업이 남성기업과 비교할 때 정형화된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인천시와 수도권 내 서울시, 경기도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로 본 인천 소재 여성기업의 규모와 추이가 남성기업 및 서울시, 경기도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여성기업의 업력 분포와 더불어 창업초기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산업 대분류로 보았을 때 여성기업이 어느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남성기업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종사자 규모별, 조직 형태별로 여성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여성기업의 창업률과 생산율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여성기업의 생멸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 논문은 인천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것이며,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차이, 수도권 내 여성기업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논문과 차별성을 가진다.

## II. 여성기업의 정의, 주요 선행연구 및 지원정책

### 1. 여성기업의 정의

#### 1) 국내 법률에서의 여성기업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첫째, 회사대표로登記되어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이다. 둘째,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여성기업에 해당한다. 셋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에 해당한다. 첫째, 총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어야 한다. 둘째, 총 출자자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해야 한다. 셋째, 이사가 여성인 조합원이어야 한다. 넷째, 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이어야 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는 2014년 1월 시행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무화’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2016년에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개편하였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무화’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계획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실제 소유자는 남성인데 대표 명의만 여성인 위장 여성기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부적격 여성기업이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의무화’를 개편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여성기업의 정의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포함되었다. 이는 여성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2) 통계적 산출을 위한 여성기업 분류

여성기업 특성 분석을 위한 첫 단계는 전체 기업에서 여성기업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기업을 추출할 때 앞서 설명한 여성기업의 법적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만으로 여성기업을 한정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요건을 갖추고도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통계청은 별도로 여성기업을 정의하지 않고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의 여성기업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통계청의 여성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실태조사’의 통계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통계청은 독자적으로 ‘여성기업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여성기업과 관련된 기초통계인 ‘전국사업체조사’를 생산 및 제공하고 있다. 이때 통계청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사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 성별 사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기업과 사업체의 개념이 다르고 대표자 성별만으로 여성기업 또는 여성사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성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2021 여성기업 실태조사’까지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기업체 명부」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했었다. 그러나 2022년 여성기업 실태조사부터는 통계청의 「기업통계 등록부(SBR)」 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구축하고 표본추출틀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모집단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기업체를 영위하는 여성이 대표인 기업 중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외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하고 있다. 조사목적에 부합하

지 않는 일부 업종도 제외하고 있다. 이때 제외된 업종은 ‘주점업’, ‘회사  
본부’,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  
교 및 대안학교’,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  
체이다.

[표 1] 여성기업 사업체의 통계작성대상 분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작성대상 분류	
모집단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 중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의 법인으로 한정		
01	농업	조사모집단 제외 산업	
02	임업		
03	어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5621	주점업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제외
7151	회사본부		
851	초등교육기관		
852	중등교육기관		
853	고등교육기관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4	협회 및 단체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23)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통계작성 기준은 대표자 성별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와 상법상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의 산업을 제외하고 있어서 대다수 선행연구나 통계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표자 성별 기준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성기업 관련 통계를 작성 및 발표하고 있으므로 통계적 일관성을 따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 센터의 통계작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만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분석대상을 기업등록부 대신에 전국사업체조사로 한정하였다.

## 2. 국내 주요 선행연구

국내 여성기업 관련 연구는 주로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과 여성기업의 지원 방안 관련 논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여성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양현봉·박종복(2014), 김준·김지환(2018), 남기정 외(2019), 이미순(2023) 등이 있고, 여성기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논문으로는 민경원(2014), 김종숙 외(2018), 최경호(2019) 등을 들 수 있다.

[표 2] 여성기업 관련 연구

구분	저자	자료	대상	범위	분석 내용 및 주요 결과
여성 기업 특성	양현봉 박종복 (2014)	여성 지식 기술 창업 활동 실태 조사	지식 기술 집약형 여성 창업 기업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조절요인 분석</li> <li>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이공의학계열의 여성기업가 지원프로그램, 저학력 예비창업자와 CEO 여성기업가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보육과 창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li> </ul>

구분	저자	자료	대상	범위	분석 내용 및 주요 결과
여성 기업 특성	김준 김지환 (2018)	전국 사업체 조사	여성 기업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li> <li>여성기업 지원은 산업별로 효과가 높은 순으로 선별하여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li> </ul>
	남기정 외 (2019)	창업 중소 기업의 비재무 정보	여성 창업 기업, 남성 창업 기업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창업기업과 남성창업기업의 생존률 및 생존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성 분석</li> <li>여성창업기업의 연도별 생존율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 규모, 자금조달의 어려움, 남성 중심의 사업 관행 및 네트워크 등이 이유로 파악</li> </ul>
	이미순 (2023)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	여성과 남성 벤처 기업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기반 업종의 여성 창업기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남성 벤처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진입하고, R&amp;D 인력 보유기업 비중도 높음</li> <li>여성 벤처기업은 남성 벤처기업에 비해 규모와 수적인 측면에서 열세이고, 낮은 투자유치와 다양하지 못한 자금 조달처 등이 한계</li> </ul>
여성 기업 지원 방안	민경원 (2014)	-	여성 기업	미국 영국 일본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업의 특징, 지원정책, 법제를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li> <li>여성 대상 창업 교육 지원사업 확대, 여성 우선 연구개발비, 여성 기업을 우선 시하는 자금 지원방안 제안</li> </ul>
	김종숙 외 (2018)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여성기업의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도출</li> </ul>
	최경호 (2019)	-	여성 기업 지원법	해당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업지원법의 문제점 검토</li> <li>여성기업지원 관련 각종 평가의 여성전문가 비율 제고,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여성기업 인식제고 조항 등을 제안</li> </ul>

국내 선행연구는 첫째, 여성기업 관련 분석의 원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 창업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등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논문은 주로 특정 연도(단년도)를 기준으로 여성기업의 특성과 지원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기존 논문과는 다르게 단년도가 아닌 10년간의 장기 추이를 통해 인천 소재 여성기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인천시의 여성기업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 3. 수도권 여성기업의 지원정책

인천시 여성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면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에 앞서서 인천시 여성기업의 지원정책 추진 사항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2011년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한국여성경제인 인천지회가 중심이 되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의 주요 지원사업은 [표 3]과 같이 주로 여성기업의 창업과 육성, 여성기업가 양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여성의 광장, 여성기업종합지원 센터에서도 여성기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기업인을 발굴 및 육성하고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천시의 여성기업 정책은 여성기업가를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창업 측면에서는 기업의 생애주

[표 3] 인천지회의 여성기업 주요 정책

정책명	대상	목적
여성창업 보육센터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보육, 여성경제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li> <li>입주기업 지원역량 강화를 통한 입주기업 보육성과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실현</li> </ul>
여성가장 창업자금	생계형 여성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 경제활동 극대화</li> </ul>
여성창업 경진대회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전문 인력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li> <li>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li> </ul>
여성최고경영자 과정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경영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자 자질향상과 마인드 혁신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li> </ul>

자료(출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기에서 창업기인 시작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이르기까지의 후반 지원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개선사업비, 채용장려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인천광역시 2022).

경기도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에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실태조사,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여성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창업 준비단계, 3년 미만의 초기단계, 창업 안정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창업의 단계별 수요에 맞춰 지원한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여성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첫째, 예비 여성창업자나 창업 초기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창업플랫폼인 '꿈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온

라인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오프라인 플랫폼에서는 공용사무 공간 제공, 창업교육, 창업상담,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등 총 7개의 꿈마루가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3년 미만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창업지원센터는 2개소(남부, 북부)가 운영 중이며,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여성기업 입주기업 지원은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 컨설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안정단계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창업성장센터 및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창업성장센터에서는 창업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한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하는 우수

[표 4] 경기도 여성기업 정책 현황

구분	정책명	주요 내용
창업 준비단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특화 코워킹 스페이스인 꿈마루를 총 7개소 운영(경기 남부, 경기북부, 고양시, 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포천시)</li> <li>도내 여성 우수 창업자 발굴을 위해 여성창업 경진대회 개최(멘토링, 사업화지원금 지급 등)</li> </ul>
창업 초기단계	여성창업지원센터 (남부, 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공간 제공, 사업화 지원, 판로구축, 네트워크 교류</li> </ul>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화 지원(제품생산, 산업재산권, 판로개척)</li> <li>경영능력 향상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컨설팅)</li> </ul>
창업 안정단계	여성창업 성장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공간, 사업화, 멘토링</li> </ul>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여성기업 선정</li> <li>홍보, 온라인 마케팅, 국내 외 박람회, 컨설팅 교육 등 마케팅 지원</li> <li>제품설계 및 생산, 디자인, 인증, 해외특허 등 사업화 지원</li> </ul>

자료(출처): 이다희·김현창(2023), 정형욱·황나리(2023)를 기반으로 재구성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업력 3년 이상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과 혁신역량이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해 매체 홍보, 마케팅, 사업화 등 맞춤형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5일 제정되었고, 2023년 7월 24일 일부 개정되었다. 조례 제정 외에도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서울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서울시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창업지원, 판로 및 역량강화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지원은 여성창업보육센터와 여성창업플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로 및 역량강화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구매의 확대, 여성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판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고용 우수기업에는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 Ⅲ. 인천시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

#### 1. 분석 자료와 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이고,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이다. 「전국사업체조사」는 2017년부터 10차 산업분류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 이전 자료는 9차 산업분류를 10차로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10차 산업으로 연계하면서 2016년 이전 자료 중 일부 사업체가 대상 외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

여, 9차 기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하는 원자료의 경우 공표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체의 세부 데이터가 누락되어 여성기업을 완벽히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sup>1)</sup>

다른 중요한 변동사항은 2021년 제28차 조사부터 「경제총조사」에 포함하여 실시되면서 조사기반에서 등록기반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을 도입한 등록기반으로 작성되어 2020년부터 2021년 통계표까지 2년간 수록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행정자료 등록기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동안 현장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사업체(예: 가구 내 사업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공표한 자료, 즉 조사기반 자료와는 서로 다른 모집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2012~2019년 자료와 2020~2021년 자료는 시계열적으로 불연속이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은 이러한 시계열의 불연속 문제로 인해 횡단면 분석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시계열 분석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는 시·도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인천시 여성기업의 정형화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간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요 분석방법은 여성기업 특성분석을 위한 인천시 여성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밀집 산업 분석 등의 통계분석, 그리고 창업률과 생산율

---

1) 통계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인천시 미공표 사업체 수는 2021년 기준 2,678개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을 합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0.9%를 차지한다. 이 연구에서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은 미공표 사업체 수를 제외하고 이루어졌다.

분석 등을 위한 지수 작성이 중심이다.

## 2. 사업체 수로 본 인천시 여성기업의 위상

### 1)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특징

기존 여성기업 관련 연구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형화된 일반적 이론은 부재한 상태다. 다만 경험적·실증적 연구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가설적 이론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는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강하게 만들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이정한 2024).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기본추계)에 따르면 2024년 인천시 인구는 3,049,340명이며, 이 중 1,520,432명이 여성으로 남성(1,528,908명)과 비슷하다. 인구성장률은 1.34%로, 2020~2021년 2년 연속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며 2012년 1.41% 이후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통계청은 2025년 이후 증가율이 0.2%대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았으며, 2038년을 기점으로 점차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15~64세 인구가 2,195,070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15~64세 인구 비중 또한 2012년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40년은 60%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1.5%에서 2023년 65.2%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6.5%에

서 2023년 55.9%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 같은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1%에서 74.6%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보았을 때 인천시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모두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대체로 높았으나, 비중이 큰 산업 중 인천시는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서울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경기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인천시 '건설업'의 경우 2020년에 산업 내 비중 순위가 6위였으나, 2021년부터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 2) 인천시 여성기업의 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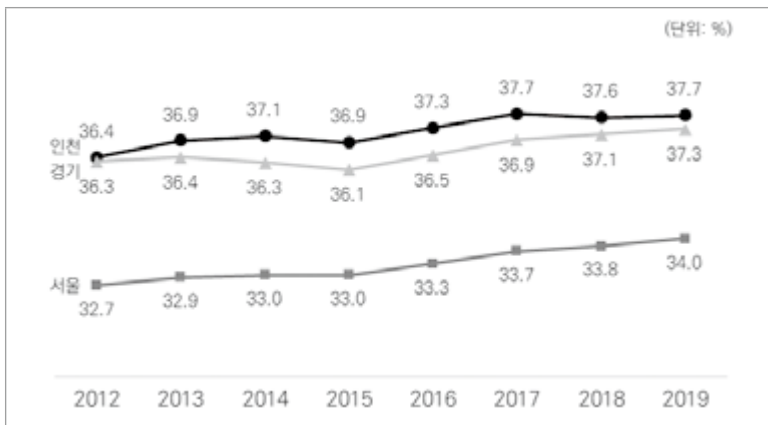
인천시 여성기업의 사업체 수는 2021년 기준으로 103,267개, 남성기업은 185,669개이다. 전체 사업체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7%로 남성기업(64.3%)보다 28.6%p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기업은 연평균 2.9%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 남성기업(2.1%)보다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간 비교에서 2021년 인천시의 여성기업 수는 서울시(384,135개)의 26.9%, 경기도(489,704개)의 21.1% 수준이었다. 그리고 2012~2019년 중 인천시 여성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서울시(1.5%)보다는 높았고, 경기도(3.8%)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여성기업의 비중은 서울시(34.1%)와 경기도(35.2%)를 상회해 수도권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성기업 사업체 수 추이(2012~2021)

(단위: 개, %)

연도	인천		서울		경기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2012	57,923	101,036	235,152	484,783	245,809	431,243
2013	58,938	100,691	238,329	485,898	254,618	444,156
2014	61,187	103,929	247,656	503,412	266,636	468,287
2015	61,875	105,975	250,664	509,633	271,975	482,157
2016	64,699	108,752	253,400	507,575	285,104	496,178
2017	67,294	111,166	257,210	506,615	296,648	506,501
2018	69,226	114,870	258,367	505,632	308,874	523,618
2019	70,655	116,947	260,352	504,713	319,462	537,792
2020	101,201	184,570	389,938	759,820	475,817	889,091
2021	103,267	185,669	384,135	743,611	489,704	900,938
연평균 증가율 ('12~'19)	2.9	2.1	1.5	0.6	3.8	3.2



[그림 1] 여성기업 사업체 수 비중 추이(2012~2019)

### 3) 인천시 여성기업의 수도권 내 비중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여성기업 사업체 중 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10.6%이다. 수도권 내에서 인천시가 차



지하는 비중은 10.5%~10.9%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 여성기업 비중은 수도권 전체의 절반가량인 50.1%로 가장 많았고, 201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 여성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39.3%이며,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여성기업 간의 격차는 2012년 2.0%p에서 2019년 9.1%p까지 벌어졌다.

[표 6] 수도권 내 여성기업 비중 추이(2012~2021)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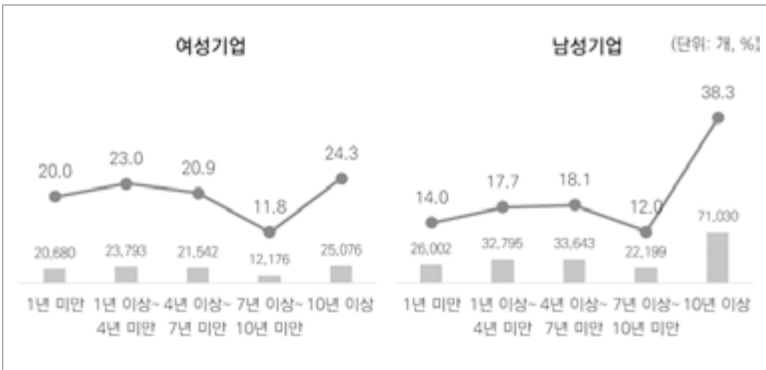
연도	사업체 수			비중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2012	57,923	235,152	245,809	10.7	43.6	45.6
2013	58,938	238,329	254,618	10.7	43.2	46.1
2014	61,187	247,656	266,636	10.6	43.0	46.3
2015	61,875	250,664	271,975	10.6	42.9	46.5
2016	64,699	253,400	285,104	10.7	42.0	47.3
2017	67,294	257,210	296,648	10.8	41.4	47.8
2018	69,226	258,367	308,874	10.9	40.6	48.5
2019	70,655	260,352	319,462	10.9	40.0	49.1
2020	101,201	389,938	475,817	10.5	40.3	49.2
2021	103,267	384,135	489,704	10.6	39.3	50.1

### 3. 인천시 여성기업의 주요 특성 분석

#### 1) 업력 수준

2021년 인천시 여성기업의 업력별 비중은 '10년 이상'이 24.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1년 이상~4년 미만'(23.0%), '4년 이상~7년 미만'(20.9%), '1년 미만'(20.0%), '7년 이상~10년 미만'(11.8%)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기업은 '10년 이상'이 38.3%로 가장 많고, 그다음 '4년 이상~7년 미

만'(18.1%), '1년 이상~4년 미만'(17.7%), '1년 미만'(14.0%), '7년 이상~10년 미만'(12.0%) 순이었다. 남성기업의 경우 10년 이상 된 기업이 여성기업보다 14.0%p나 높게 나타나 여성기업의 업력 수준이 남성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여건이 아직도 남성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거보다 창업여건이 개선되면서 신생 여성기업의 출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할 창업초기기업, 창업률 등의 추이를 고려할 때 전자가 더 큰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인천시 업력별 사업체 수 및 비중(2021)

수도권 간 비교를 하면, 서울의 여성기업은 인천과 동일하게 업력 '10년 이상'이 27.9%로 가장 많고, 그다음 '1년 이상~4년 미만'(21.4%), '4년 이상~7년 미만'(20.6%), '1년 미만'(17.8%), '7년 이상~10년 미만'(12.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7년 이상~10년 미만'만 11.8%로 낮게 나타나고 나머지 구간은 21~23% 사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0년 이상' 된 남성기업 비중이 41.8%로 인천이나 경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표 7] 업력별 사업체 비중(2021)

(단위: %)

업력	인천		서울		경기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1년 미만	20.0	14.0	17.8	12.4	21.2	14.6
1년 이상~4년 미만	23.0	17.7	21.4	16.5	23.6	18.2
4년 이상~7년 미만	20.9	18.1	20.6	17.5	21.0	18.5
7년 이상~10년 미만	11.8	12.0	12.3	11.8	11.8	12.2
10년 이상	24.3	38.3	27.9	41.8	22.5	36.6
총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 여성기업의 업력별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0년 이상'이 연평균 4.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4년 이상~7년 미만'이 2.5%, '1년 미만' 2.3%, '1년 이상~4년 미만' 2.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업력 7년 미만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012~2019년 중 인천시 여성기업의 업력별 사업체 수 비중 추이는 '10년 이상'만 유일하게 3.2%p 확대되었고, 다른 업력별 비중은 모두 2012년 대비 축소되었다. 10년 미만 사업체들의 축소폭은 0.5~1.2%p 내외로 크지는 않았으나 1년 미만 업체를 비롯해 나머지 업력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인천시 여성기업의 업력별 사업체 수 추이(2012~2021)

(단위: 개, %)

연도	1년 미만	1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2012	11,168	14,480	11,657	7,119	13,499
2013	10,691	15,146	12,014	6,781	14,306
2014	10,416	16,196	12,468	7,013	15,094
2015	11,791	14,833	12,534	7,271	15,446
2016	11,434	16,054	13,298	7,751	16,162

연도	1년 미만	1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7	10,892	17,488	13,609	8,281	17,024
2018	10,996	17,425	13,945	8,602	18,258
2019	13,085	16,825	13,887	8,134	18,724
2020	16,820	27,031	21,373	11,935	24,042
2021	20,680	23,793	21,542	12,176	25,076
연평균 증가율 ('12~'19)	2.3	2.2	2.5	1.9	4.8

[표 9] 인천시 여성기업의 업력별 사업체 비중 추이(2012~2021) (단위: %)

연도	1년 미만	1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2	19.3	25.0	20.1	12.3	23.3
2013	18.1	25.7	20.4	11.5	24.3
2014	17.0	26.5	20.4	11.5	24.7
2015	19.1	24.0	20.3	11.8	25.0
2016	17.7	24.8	20.6	12.0	25.0
2017	16.2	26.0	20.2	12.3	25.3
2018	15.9	25.2	20.1	12.4	26.4
2019	18.5	23.8	19.7	11.5	26.5
2020	16.6	26.7	21.1	11.8	23.8
2021	20.0	23.0	20.9	11.8	24.3

## 2) 창업초기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창업초기기업으로 지칭한다. 인천시 여성기업 중 창업초기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68.6%로 남성기업(54.4%)에 비해 1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여성기업의 창업초기기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68.9%에서 2019년 66.3%로 2.6%p 줄어든 반면, 남성기업은 52.3%에서 51.5%로 0.8%p 축소되어 상대적으로 여성기업의 창업초기기업 비중이

좀 더 크게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여성기업 비중은 2012년 66.7%에서 2019년 63.0%로 3.7%p 축소되고, 경기도의 여성기업 비중은 72.4%에서 68.0%로 4.4%p 축소되어 인천보다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에서 보면, 서울시 여성기업의 창업초기기업 비중이 가장 낮았고,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남성기업 중 창업초기기업 역시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여성기업보다 낮게 나타나 인천시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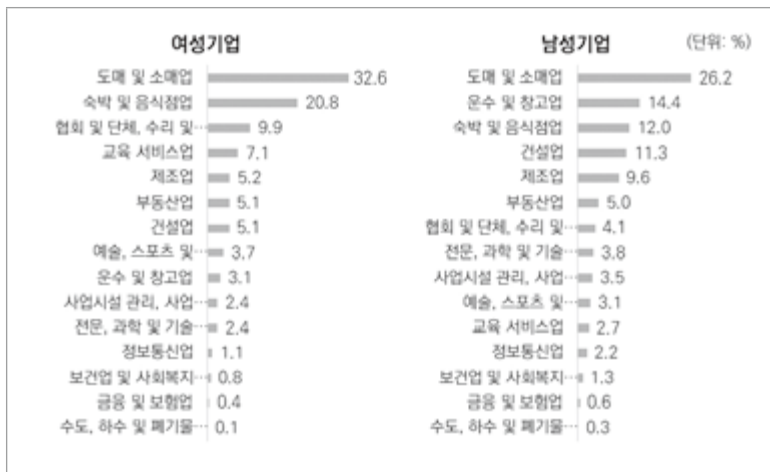
[표 10] 수도권 창업초기기업 비중 추이(2012~2021) (단위: %)

연도	인천		서울		경기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2012	68.9	52.3	66.7	49.3	72.4	56.1
2013	68.4	52.2	66.0	49.1	71.2	54.8
2014	68.5	51.7	66.6	50.6	70.9	55.0
2015	68.0	53.2	65.8	50.2	69.7	53.8
2016	67.5	52.1	65.0	49.4	69.3	53.7
2017	67.1	52.3	63.8	48.7	68.5	52.7
2018	65.9	51.0	62.2	47.2	67.7	52.3
2019	66.3	51.5	63.0	48.3	68.0	52.9
2020	69.1	55.0	65.3	52.2	70.6	56.5
2021	68.6	54.4	64.7	50.9	70.5	55.9

2021년 기준으로 인천시 여성기업 중 창업초기기업의 대분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32.6%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8%로 2개 산업에 절반 이상인 53.4%가 밀집해 있다. 그 다음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9%), '교육서비스업'(7.1%), '제조업'(5.2%), '부동산업'(5.1%), '건설업'(5.1%)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인천시 남성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 26.2%로 가장 높았으나 그다음이 ‘운수 및 창고업’(14.4%), ‘숙박 및 음식점업’(12.0%), ‘건설업’(11.3%) 등의 순으로 여성기업보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인천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중 창업초기기업의 대분류 업종별 분포는 모두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위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중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기업이 10% 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 업종이 3개인 반면, 여성기업은 상위 2개 업종 외에 10%를 상회하는 업종이 없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 인천시 대분류별 창업초기기업 비중(2021)

### 3) 종사자규모

인천시 여성기업 종사자 수는 2021년 기준 242,113명, 남성기업은 756,412명이었다. 2012~2019년 중 종사자 수는 여성기업이 연평균 4.3%, 남성기업이 연평균 3.0% 증가하여 여성기업의 증가세가 더 높았다.

같은 기간에 서울시의 경우 여성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8%, 남성 기업은 2.1% 각각 증가하여 여성기업의 증가세가 더 높았다. 경기도 역시 여성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5.4%, 남성기업은 4.1%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 지역은 모두 여성기업의 증가율이 남성기업보다 높았고, 특히 경기도 여성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성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표 11] 여성기업 종사자 수 추이(2012~2021)

(단위: 명, %)

연도	인천		서울		경기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2012	165,154	534,424	740,023	3,024,612	757,129	2,537,437
2013	172,269	544,363	744,198	3,051,396	799,451	2,711,770
2014	181,671	567,214	796,669	3,170,770	858,618	2,868,914
2015	189,648	606,446	852,445	3,466,049	889,623	3,013,659
2016	200,635	605,912	863,177	3,430,242	943,236	3,083,650
2017	210,727	619,919	879,016	3,441,905	1,003,517	3,161,925
2018	215,382	647,121	881,542	3,516,454	1,060,014	3,288,853
2019	221,620	658,285	895,012	3,497,298	1,091,730	3,356,036
2020	237,561	752,183	993,804	4,063,930	1,150,352	3,883,920
2021	242,113	756,412	981,002	3,968,953	1,175,175	3,944,806
연평균 증가율 ('12~'19)	4.3	3.0	2.8	2.1	5.4	4.1

인천시 전체 종사자 중 여성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 비중은 2021년 기준 24.2%로 남성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의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인천시 여성기업 비중이 35.7%로 종사자 수 비중을 11.5%p 상회한다. 이처럼 여성기업 종사자 비중이 사업체 비중보다 낮다는 것은 여성기업의 사업체 규모가 그만큼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종사

자 수 중 여성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12년 23.6%에서 2019년 25.2%로 1.6%p 소폭 증가에 그쳐 여전히 남성기업에 비해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간 비교를 하면, 인천시의 여성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서울시의 여성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21년 기준 19.8%로 인천시보다 4.4%p 낮았으며, 경기도 역시 23.0%로 인천시보다 1.2%p 낮았다. 2012년 대비 2019년 비중은 서울시는 0.7%p 증가, 경기도는 1.6%p 늘어나는 등 모두 소폭 확대에 그쳤다.

[표 12] 여성기업 종사자 수 비중 추이(2012~2021)

(단위: %)

연도	인천		서울		경기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2012	23.6	76.4	19.7	80.3	23.0	77.0
2013	24.0	76.0	19.6	80.4	22.8	77.2
2014	24.3	75.7	20.1	79.9	23.0	77.0
2015	23.8	76.2	19.7	80.3	22.8	77.2
2016	24.9	75.1	20.1	79.9	23.4	76.6
2017	25.4	74.6	20.3	79.7	24.1	75.9
2018	25.0	75.0	20.0	80.0	24.4	75.6
2019	25.2	74.8	20.4	79.6	24.5	75.5
2020	24.0	76.0	19.6	80.4	22.9	77.1
2021	24.2	75.8	19.8	80.2	23.0	77.0

한편,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은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인천시 여성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3명으로, 남성기업(4.1명)의 56.1% 수준에 불과하였다. 2012~2019년 중 추이를 보면 2012년 2.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중 남성기업 역시 5.3명에서 5.6명으로 늘어났다. 수도권 간 비교를 하면, 서울시 여성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21년 기준 2.6명



으로 인천시보다 많고, 경기도 역시 2.4명으로 인천시보다 소폭 높았다. 2012~2019년 중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3.1명에서 3.4명으로 0.3명, 경기도도 3.1명에서 3.4명으로 0.3명 증가하였다.

[표 13] 여성기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추이(2012~2021) (단위: 명)

연도	인천		서울		경기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2012	2.9	5.3	3.1	6.2	3.1	5.9
2013	2.9	5.4	3.1	6.3	3.1	6.1
2014	3.0	5.5	3.2	6.3	3.2	6.1
2015	3.1	5.7	3.4	6.8	3.3	6.3
2016	3.1	5.6	3.4	6.8	3.3	6.2
2017	3.1	5.6	3.4	6.8	3.4	6.2
2018	3.1	5.6	3.4	7.0	3.4	6.3
2019	3.1	5.6	3.4	6.9	3.4	6.2
2020	2.3	4.1	2.5	5.3	2.4	4.4
2021	2.3	4.1	2.6	5.3	2.4	4.4

인천시 여성기업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2021년 종사자 수 1~4명 규모의 사업체는 94,836개로 전체 여성기업의 9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5~9명 규모의 사업체가 5,919개로 5.7%를 차지하고, 10~49명 사업체는 2,305개(2.2%), 50~299명 사업체 193개(0.2%), 300명 이상 사업체는 14개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4명 이하의 영세사업체가 대부분이었으며,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9년 중 인천시 여성기업의 사업체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종사자 수 5~9명인 사업체가 7.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10~49명 6.7%, 50~299명 4.8%, 1~4명 2.3% 순이었다. 소규모 사업체의 증가보다 5인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업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14】 인천시 여성기업의 사업체 규모별 추이(2012~2021) (단위: 개, %)

연도	1~4명	5~9명	10~49명	50~299명	300명 이상
2012	51,417	4,590	1,775	135	6
2013	51,915	4,862	2,015	139	7
2014	53,576	5,342	2,117	146	6
2015	53,599	5,855	2,242	172	7
2016	55,750	6,232	2,526	186	5
2017	57,692	6,828	2,580	188	6
2018	59,060	7,234	2,733	195	4
2019	60,094	7,574	2,794	187	6
2020	92,700	6,060	2,212	218	11
2021	94,836	5,919	2,305	193	14
연평균 증가율 ('12~'19)	2.3	7.4	6.7	4.8	0.0

인천시 여성기업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 추이를 보면, 종사자 수 1~4명 규모는 2012년 88.8%에서 2019년 85.1%로 3.7%p 감소하였다. 반면 5~9명 규모는 7.9%에서 10.7%로 2.8%p 증가하였고 10~49명 규모도 3.1%에서 4.0%로 0.9%p 증가하였다. 2021년 인천시 남성기업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은 종사자 수 1~4명 규모가 84.9%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여성기업보다 6.9%p 낮은 수준이다. 5~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8.7%)과 10~49명 규모 사업체 비중(5.6%) 등은 여성기업보다 높았다. 인천시 남성기업도 1~4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이 2012년 79.2%에서 2019년 76.5%로 2.7% 축소되었으나, 5~9명 규모는 11.5%에서 13.8%로, 10~49명 규모는 8.0%에서 8.5%로 확대되어 여성기업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표 15] 인천시 여성기업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 추이(2012~2021) (단위: %)

연도	1~4명	5~9명	10~49명	50~299명	300명 이상
2012	88.8	7.9	3.1	0.2	0.0
2013	88.1	8.2	3.4	0.2	0.0
2014	87.6	8.7	3.5	0.2	0.0
2015	86.6	9.5	3.6	0.3	0.0
2016	86.2	9.6	3.9	0.3	0.0
2017	85.7	10.1	3.8	0.3	0.0
2018	85.3	10.4	3.9	0.3	0.0
2019	85.1	10.7	4.0	0.3	0.0
2020	91.6	6.0	2.2	0.2	0.0
2021	91.8	5.7	2.2	0.2	0.0

[표 16] 인천시 남성기업의 사업체 규모별 비중 추이(2012~2021) (단위: %)

연도	1~4명	5~9명	10~49명	50~299명	300명 이상
2012	79.2	11.5	8.0	1.2	0.1
2013	78.4	11.9	8.4	1.2	0.1
2014	78.1	12.1	8.5	1.2	0.1
2015	77.2	12.8	8.7	1.3	0.1
2016	77.1	13.0	8.6	1.2	0.1
2017	77.0	13.2	8.5	1.2	0.1
2018	76.7	13.6	8.5	1.2	0.1
2019	76.5	13.8	8.5	1.2	0.1
2020	84.9	8.8	5.5	0.8	0.1
2021	84.9	8.7	5.6	0.7	0.1

#### 4) 고용특성

여성기업의 고용특성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보았고, 이때 고용안정성은 근로자의 상용직 여부로 판단했다. 2021년 인천

[표 17] 인천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상용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여성기업			남성기업		
	여성	남성	합계	여성	남성	합계
2012	37,617	24,673	62,290	111,677	240,104	351,781
2013	39,389	25,979	65,368	118,913	243,468	362,381
2014	44,016	29,235	73,251	127,973	256,510	384,483
2015	47,579	31,884	79,463	138,347	274,646	412,993
2016	53,518	32,657	86,175	141,651	267,124	408,775
2017	55,659	33,696	89,355	149,398	271,750	421,148
2018	57,222	33,448	90,670	158,376	283,528	441,904
2019	56,571	34,327	90,898	159,925	288,402	448,327
2020	46,487	36,697	83,184	163,890	309,597	473,487
2021	50,043	42,631	92,674	174,647	317,304	491,951

시 여성기업의 상용근로자 수는 92,674명이고, 남성기업의 상용근로자 수는 491,951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1년 여성기업의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은 54.0%로 남성 상용근로자 비중(46.0%)보다 높았으나, 남성기업의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은 35.5%에 불과하였다. 이 같은 차이는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에 더욱 적극적이며, 고용 안정성 또한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2012~2019년 중 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는 연평균 5.5% 증가해 남성기업의 연평균 증가율(3.5%)보다 높았다. 또한 이 기간 중 여성기업의 여성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도 6.0%로 남성 상용근로자의 증가율(4.8%)을 상회했다. 이 같은 특징은 남성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기업의 여성 상용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은 5.3%로 남성 상용근로자(2.7%)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을 막론하고,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 5) 조직형태

조직형태별로 본 인천시 여성기업은 주로 개인사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남성기업보다 개인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2021년 인천시 여성기업 중 개인사업체는 94,130개로 91.2%를 차지하고, 회사법인은 8,040개로 7.8%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2021년 인천시 남성기업 중 개인사업체는 149,248개로 80.4%를 차지하고, 회사법인은 32,889개로 17.7%를 차지하여 여성기업보다 개인사업체 비중은 10.8%p 낮고, 법인사업체 비중은 9.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9년 중 인천시 여성기업의 개인사업체 수는 연평균 2.4% 증가한 반면, 회사법인 수와 회사이외법인 수는 각각 연평균 9.3%, 9.2%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중 개인사업체 비중도 2012년 94.7%에서 2019년 91.9%로 2.8%p 감소하였다.

[표 18] 인천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 %)

연도	여성기업			남성기업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2012	54,856	2,822	245	84,992	14,894	1,150
2013	55,512	3,162	264	83,867	15,549	1,275
2014	56,981	3,890	316	85,008	17,449	1,472
2015	57,638	3,914	323	86,426	18,064	1,485
2016	59,981	4,333	385	88,633	18,601	1,518
2017	62,063	4,843	388	89,829	19,790	1,547
2018	63,763	5,043	420	92,125	21,118	1,627
2019	64,955	5,247	453	93,018	22,204	1,725
2020	92,244	7,963	994	148,499	32,744	3,327
2021	94,130	8,040	1,097	149,248	32,889	3,532
연평균 증가율 (*12~19)	2.4	9.3	9.2	1.3	5.9	6.0

[표 19] 인천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여성기업			남성기업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2012	94.7	4.9	0.4	84.1	14.7	1.1
2013	94.2	5.4	0.4	83.3	15.4	1.3
2014	93.1	6.4	0.5	81.8	16.8	1.4
2015	93.2	6.3	0.5	81.6	17.0	1.4
2016	92.7	6.7	0.6	81.5	17.1	1.4
2017	92.2	7.2	0.6	80.8	17.8	1.4
2018	92.1	7.3	0.6	80.2	18.4	1.4
2019	91.9	7.4	0.6	79.5	19.0	1.5
2020	91.1	7.9	1.0	80.5	17.7	1.8
2021	91.2	7.8	1.1	80.4	17.7	1.9

## 6) 여성기업의 생멸 특성

본 논문에서 여성기업의 생멸 특성은 창업률과 생산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률은 해당 연도의 특정 지역에서 전체 사업체 중 창업한 사업체의 비율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 원 자료이다. 이때 다른 지역에서 창업 후 해당 연도에 특정 지역으로 새로 유입된 기업은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에 특정 지역으로 새로 유입된 사업체도 창업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창업률은 해당 연도의 전체 사업체 중에서 창업된 사업체와 유입된 사업체의 비율을 의미한다. 창업률은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구했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text{창업률 } (s)_t = \frac{\text{창업 및 유입 사업체 수}_t}{\text{전체 사업체 수}_t}$$

여기서,  $s$ 는 여성기업, 또는 남성기업을 의미한다.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생잔율은 창업 후  $n$ 년 이후까지 잔존한 창업 사업체의 비중이다. 이 때 특정 연도의 창업 사업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업 사업체 수와 유입 사업체 수를 합한 것이다. 생잔율  $(s)_n$ 은  $n$ 년 이전에 창업하거나 유입되어 해당 연도( $t$ )까지 해당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중을 의미한다(김묵한 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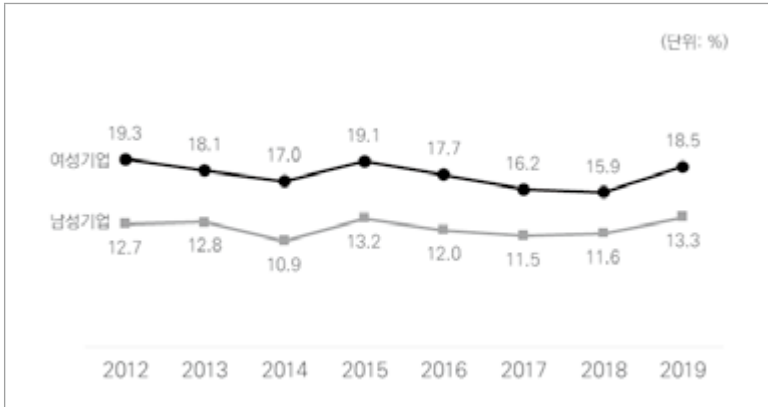
$$\text{생잔율}(s)_n = \frac{\text{창업 및 유입 사업체 수}(s)_{t-n,t}}{\text{창업 및 유입 사업체 수}(s)_{t-n,t-n}}$$

여기서,  $s$ 는 여성기업 또는 남성기업을 의미한다.

창업 및 유입 사업체 수  $(s)_{t-n,t}$ 는  $(t-n)$ 년에 대상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대상 지역으로 유입한 사업체 중  $t$ 년에 대상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 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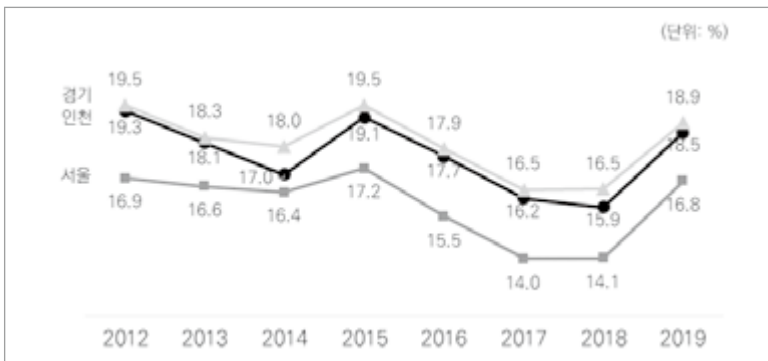
### (1) 창업률

창업률로 본 인천시 여성기업의 창업활동은 2021년 현재 남성기업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여성기업의 창업률은 20.0%(20,680개)였으며, 남성기업은 14.0%(26,002개)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창업률 추이를 보면, 여성기업은 2012년 19.3%에서 증감을 되풀이하다가 2019년 18.5%로 소폭 감소하였고, 남성기업은 2012년 12.7%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13.3%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창업률 격차는 2012년 6.6%p에서 2019년 5.2%p로 다소 줄어들었다. 2012~2019년 중 창업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기업은 2.3%, 남성기업은 2.8%로 남성기업의 증가율이 여성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여성기업의 창업률이 남성기업보다 높지만, 최근 추세는 남성기업의 창업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인천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창업률 추이(2012~2019)

수도권 내 여성기업의 창업률을 비교해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인천시, 서울시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창업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시의 창업률은 인천과 경기도에 비해 2%p 가량 낮은 경향을 보였다. 2012~2019년 중 서울시 여성기업의 창업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인천시보다 0.9%p 낮았으며, 경기도는 3.4%로 1.1%p 높았다. 전체적인 추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감소할 때와 증가하는 시기가 일치하며 인천시와 동일한 증감 추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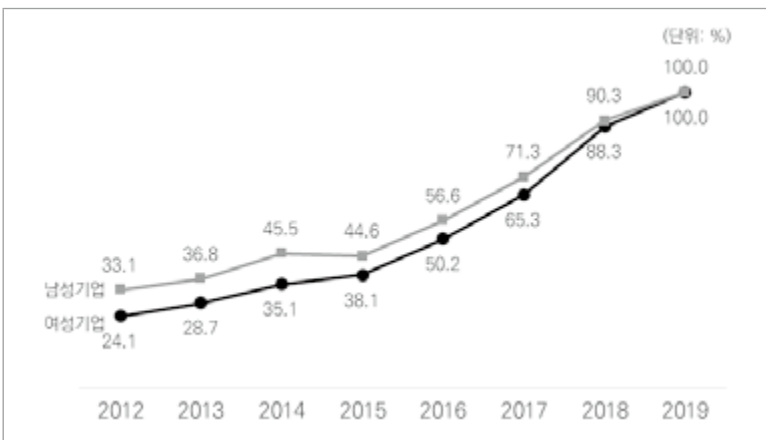
[그림 5] 수도권 여성기업의 창업률 추이(2012~2019)



(2) 생산율

본 논문에서 생산율은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 보기 위해 2019년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때 창업 사업체의 1년간 생산율은 2019년에 존재하는 2018년 창업기업, 즉 창업 후 1년간 살아남은 사업체의 비율을 의미한다. 창업 사업체의 7년간 생산율은 2019년에 존재하는 2012년 창업기업, 즉 창업 후 7년간 살아남은 사업체의 비율을 의미한다. 생산율 분석 결과, 인천시 여성기업은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생산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간 살아남은 여성기업, 즉 여성 창업사업체의 1년간 생산율은 88.3%로 나타난다. 그러나 2년 차가 되었을 때 여성기업 생산율은 65.3%로 하락하고, 창업 후 3년간 여성기업 생산율은 절반 수준인 50.2%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창업 후 7년간 살아남은 여성기업의 비율은 24.1%에 불과하다.

비교집단인 남성기업의 경우 창업 후 1년간 생산율은 90.3%로 여성기업과 비슷하지만, 창업 후 2년간 생산율은 71.3%로 여성기업과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창업 후 7년간 생산율은 33.1%로 여성기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하였지만, 여성기업보다는 9.0%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인천시 창업 사업체 생산율(2019년 기준)

다. 이 격차는 창업 후 2년 차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5년 차에 10.4%p까지 벌어지다가 이후 소폭 줄어들면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수도권 내 여성기업의 생산율을 비교한 결과 인천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서울시의 생산율 곡선은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서울시의 창업 후 1년간 생산율은 91.4%로 인천 및 경기도에 비해 소폭 높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고, 창업 후 7년간 생산율 역시 25.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여성기업은 사업체 수나 창업률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창업 후 생산하는 비율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여성기업이 장기간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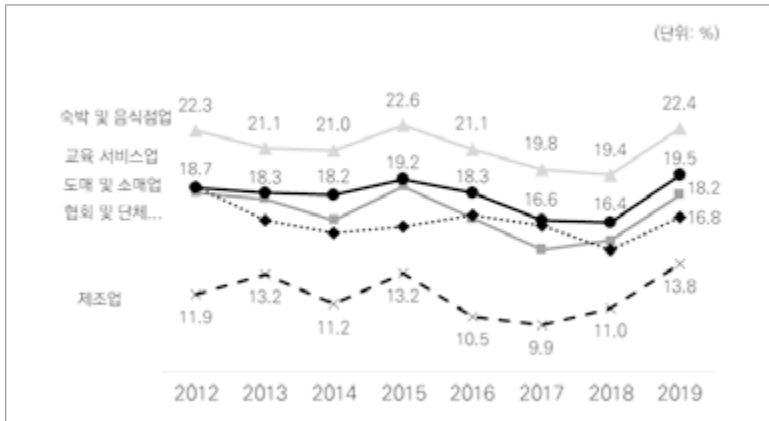
[표 20] 수도권 여성기업의 창업 사업체 생산율(2019년 기준) (단위: %)

연도	인천	서울	경기
2012	24.1	25.5	26.5
2013	28.7	28.3	29.7
2014	35.1	33.8	35.5
2015	38.1	38.1	39.8
2016	50.2	52.4	51.3
2017	65.3	69.2	67.6
2018	88.3	91.4	89.2
2019	100.0	100.0	100.0

### (3) 산업별 창업률

2021년 기준 인천시 여성기업 중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체 수 33,299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2%이다. 그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사업체 수 20,411, 비중 19.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사업체 수 11,108개, 비중 10.8%), '제조업'(사업체 수 6,671개, 비중 6.5%), '교육 서비스업'(사

업체 수 (6,565개, 비중 6.4%) 순이다. 인천시 여성기업의 대분류 산업 중 비중이 높은 5개 산업의 2019년 기준 창업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교육 서비스업’(19.5%), ‘도매 및 소매업’(1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6.8%), ‘제조업’(13.8%) 순이었다. 2012~2019년 중 창업률 추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꾸준히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가장 낮았다. 창업률의 증감 추이를 보면, ‘제조업’이 2013년 다른 산업이 감소할 때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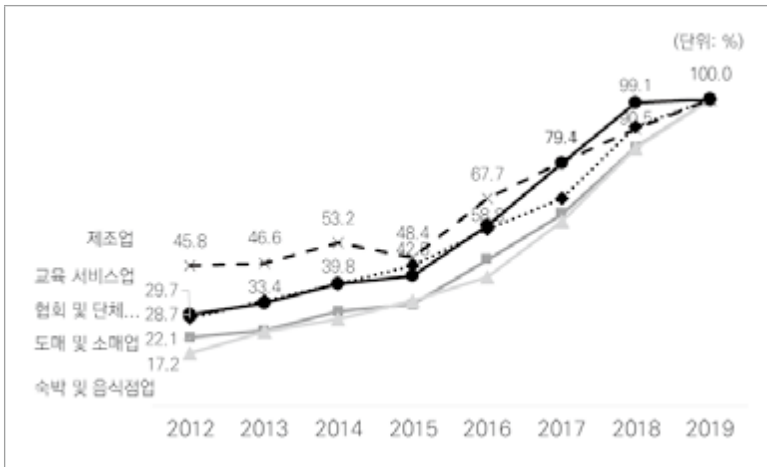
[그림 7] 인천시 여성기업의 주요 산업 창업률 추이(2012~2019)

#### (4) 산업별 생산율

인천시 여성기업 주요 산업 중 창업 후 1년간 생산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9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1.1%)과 ‘제조업’(90.5%) 역시 90%가 넘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84.0%), ‘도매 및 소매업’(84.4%)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육 서비스업’의 생산율은 2년 후부터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4년 후에는 ‘제조업’(48.4%)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5.8%)보다 낮은 42.5%로 나타났다.

창업 후 7년간 생산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45.8%)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율이 월등히 높았다. '제조업' 다음으로 생산율이 높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29.7%)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8.7%)이었으나 15%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인천시 여성기업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년간 생산율도 84.0%로 가장 낮았으며, 7년간 생산율 역시 17.2%에 불과했다. 여성기업 사업체 수 비중 2위인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7년간 생산율이 29.7%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8] 인천시 여성기업 주요 산업 생산율(2019년 기준)

#### IV. 결론

본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인천시 여성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체 수로 본 여성기업의 위상은 아직 남성기업에 미치지 못하지

만 2012년 이후 남성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임대료 등 사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성기업의 업력별 분포는 남성기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10년 이상' 된 기업은 남성기업보다 14.0%p나 낮고, '7년 미만'은 63.9%로 남성기업보다 14.1%p 높아 밀집도가 상이하다. 2012년 이후 10년 이상 오래된 여성기업이 늘어나는 점은 바람직하나, 업력 1년 미만 사업체들이 줄어드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셋째, 인천시 여성기업 중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 비중은 68.6%로 남성기업보다 14.2%p가 높았다. 대분류 산업별로 살펴보면 창업초기기업은 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절반 이상인 53.4%가 집중되어 있어 특정 산업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향후 여성기업의 창업활동이 생계형 업종 위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종사자 규모 측면에서 본 인천시 여성기업은 아직 영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인천시 전체 종사자 중 여성기업 종사자 비중은 24.2%로 남성기업 종사자 비중의 약 1/3 수준이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도 2.3명으로 남성기업의 4.1명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도 종사자 수 1~4명 규모가 전체 여성기업의 9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기업 종사자 비중은 2012년 23.6%에서 2019년 25.2%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종사자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여성 근로자의 상용직 여부로 고용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기업의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이 54.0%로 남성기업의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35.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기업이 상대

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에 적극적이며, 고용안정성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째, 인천시 여성기업은 주로 개인사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체 의존도가 남성기업보다 높은 실정이다. 2021년 여성기업의 개인사업체 비중은 94.7%로 남성기업보다 10.8%p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012~2019년 중 개인사업체는 연평균 2.4% 증가에 그쳤지만 회사법인은 연평균 9.3% 증가해 점차 회사법인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여성기업의 창업 사업체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창업 후 1년간 생존율은 88.3%로 높았으나, 창업 후 2년간 생존율은 65.3%로 급격히 감소하고,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절반인 50.2%만 살아 남았다. 특히 창업 후 7년간 생존한 여성기업의 비율은 24.1%에 불과하여 남성기업보다 9.0%p나 낮았다. 여성기업의 생존율이 남성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본력, R&D력, 마케팅력, 네트워크력 등 기업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천시 여성기업 중 사업체 수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산업에서 창업 후 7년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45.8%)이고, 가장 생존율이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2%)으로 분석되었다. 문제는 제조업이 전체 여성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19.8%에 달한다는 점이다. 인천시 여성기업의 사업체 비중이나 생존율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의 여성기업 구조에서 '교육 서비스업'과 같이 사업체 비중도 높고 생존율도 높은 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인천시는 향후 여성기업이 창업초기를 지나 장기적으로 생존하여 인천경제 발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수업종에 편재된 여성기업의 업종별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인천의 경제성장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시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혁신형 여성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의 하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모 및 조직형태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권역별 집적지와 산업거점 등에 유망 여성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현재 창업기에 집중된 지원정책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각화하여 여성기업의 생존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업단계에서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 등 인큐베이팅과 더불어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성장단계에서는 공공구매를 통한 국내 수요 창출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 및 인력 채용, 재무관리, 마케팅 분야, R&D 기획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하고, 동종 업종은 물론 이종 업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숙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축적한 기업역량을 해외로 돌릴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 강화 및 해외시장 관련 정보제공,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정보화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시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도 남성기업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의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 인구나 낮아지는 출산율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여성기업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창업을 독려하고, 조직과 규모를 성장시켜 창업초기기업을 지나 7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사업체가 증가한다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

중 어느 정도의 사업체 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생산을 또한 높은 ‘교육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인천을 대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첫 연구이자, 수도권 내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여성기업을 산업별, 규모별, 조직형태별로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기업의 창업과 생산기간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향후 여성기업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하여 제조업 내 기술수준 및 밀집산업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인천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2021년부터는 여성기업의 분류가 ‘경제총조사’를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액 및 영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재무정보를 활용한 분석도 추가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원자료의 특성상 시계열 불연속 문제로 최근 시점의 횡단면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이 최근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후 시계열 자료가 축적된다면 좀 더 다양한 계량모형을 통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묵한·김범식·박희석. 2010. 「서울시 주요 산업별 창업패턴 변화 추세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 김범식·장윤희. 2020. 「통계분석과 실태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여성기업 특성」. 서울연구원.
- 김종숙·신성미·이승현·김근태. 2018.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준·김지환. 2018. 「여성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5(2): 73-103.
- 남기정·이동명·진로. 2019. 「여성창업기업과 남성창업기업의 생존특성 비교연구」. 여성연구 100(1): 125-160.
- 민경원. 2014. 「여성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6(1): 169-189.
- 양현봉·박종복. 2014.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이다희·김현창. 2023. 「경기도 여성기업 현황과 정책제언」. GBSA Policy Focus Vol.0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이미순. 2023. 「저성장시대, 여성벤처기업의 희망과 과제」. 중소기업포커스 2022(20): 1-25.
- 이정환. 2024. 「저성장·저출생 시대, 여성기업에 주목해야 할 때」, 매일일보 (2024.02.06.).
- 인천광역시. 2022년. 「22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 계획」.
- 정형욱·황나리. 2023.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중소벤처기업부·여성경제연구소. 2022. 「2021 여성기업 백서」.  
\_\_\_\_\_. 2024.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
- 최경호. 2019. 「여성기업지원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47(3): 235~264.
- 통계청. 2000~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_\_\_\_\_. 2012~2021. 「사업체기초통계조사」.  
\_\_\_\_\_. 2022. 「전국사업체조사」.  
\_\_\_\_\_. 2024.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국 문 초 록

## 수도권 간 비교를 통해 본 인천시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

장윤희(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원)

이정현(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연구원)

박민진(수원시정연구원 데이터분석센터 연구위원)

최지원(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 연구원)

김범식(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 논문의 목적은 인천시 여성기업의 정형화된 특징을 규명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과 비교 분석을 통해 인천시 여성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천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차이, 수도권 내 여성기업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점에서 다른 논문과 차별성을 가진다. 여성기업의 특성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율이 낮고, 규모 및 조직형태 측면에서 영세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남성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기업이 인천경제 발전의 주력이 되려면 현재 도·소매업 등 소수업종에 편중된 업종구조를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기에 집중된 지원정책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정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여성기업, 남성기업, 창업초기기업, 창업률, 생산율

## Abstract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Incheon Women-Owned Businesses via Comparison Between Metropolitan Areas

Jang, Yoon-hyi (Researcher, Dept. of Economic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Lee, Jung-hyun (Researcher, Dept. of Strategic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Park, Min-jin (Research Fellow, Data Analysis Center, Suwon Research Institute)

Choi, Ji-won (Researcher, Dept. of Urban Society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Kim, Bum-sik (An Honorary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ndardized characteristics of women-owned businesses in Incheon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fostering women-owned businesses in Inche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the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analyzes trends in women-owned businesses in Incheon over the past decade, with empha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owned businesses, as well as differences among women-owned business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reby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studies. Statistical analysis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women-owned businesses utilized raw data from Statistics Korea's "Survey of Establishments and Enterpris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lthough women-owned businesses have relatively lower startup rates and are relatively small and informal in terms of siz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compared with men-owned businesses, they are growing at a faster pace than men-owned

businesses, thus indicating the potential for future development. To make women-owned businesses in Incheon an impetus for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ve women-owned businesses centered on high-value-added industries must be fostered, instead of focusing on retail and other minority industries, and support policies must be diversified based on the growth stages of the businesses, instead of focusing solely on startup support policies.

**Key words:** women-owned businesses, men-owned businesses, early start-up, start-up rate, survival rate